

13강 tea ceremony일본

한서대학교 서은주

1 일본의 다도

일본인들은 유난히 '도(道)'라는 말을 즐겨 쓴다. 그래서 서예를 서도(書道) 꽃꽂이를 이케바나·가도(生花·華道) 라고 부른다.

예능이 단순한 기예가 아닌 한 차원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두의 마음을 다듬는 방편으로 선사상(禪思想)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차를 즐기고 대접하는 다법(茶法)이 선종(禪宗)의 승려들에 의해서 계승, 발전 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도(茶道)'라 하며 혹은 '사도·차노유(ちやのゆ茶湯)'라고 한다.

이를 맛차(抹茶)을 만들고 음미하며 다기를 감상하는 예의 등을 중심으로 한 예능으로서 차카이(茶會)에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풀이하고 있다.

센리큐는 '사도 · 차노유'의 정신을 화경청적(和敬清寂)으로 정리하고 그 근본이념을 '와비'로 표현하면서 미의식을 극으로 끌어올린 동시에 차모임의 형식과 절차를 만들었다.

1. 차실 곁에 정원을 꾸민다.
2. 차실은 초가지붕에 흙벽을 발라 소박함을 강조한다.
3. 차실 출입문(니지리구치)을 가로와 세로 약 60cm로 작게 만들어 몸을 구부려야 들어간다.
4. 차실에 들어갈 때는 손님은 소지하고 있는 칼을 차실 밖시렁에 두고 들어오게 한다.

'사도 · 차노유'의 구성

일본 차회(茶會) 분위기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종교의례를 연상케 한다.

차회에 참석하는 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 차를
달이고 미시는 과정, 다구사용의 획일적인 것 등이
'사도 · 차노유'의 구성에 잘 드러나 있다.



일본 말차의 다도구

법식에 맞추어 차를 끓이고 마시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 일체를 정의한다.

일본 말차의 다도구

1. 가케모노(벽걸이족자)

도꼬노마(床之間)방의 상좌에 바닥을 약간높게 만들어 족자나 장 식물로 꾸며 놓는 곳)에 벽걸이 족자는 감상하는 대상이 되는 차 도구이다.

처음에는 불화 중심이었으나 차노유가 성행해짐에 따라 차실의 격식과 취향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벽걸이족자

벽걸의 족자와 다화(茶花)



2. 다완(茶碗)

말차를 마시기 위한 **그릇**으로 중국의 청자, 백자의 다완을 사용하였으나 와비차가 성해짐에 따라 천목이나 청자다완이 아닌 조선의 다완을 선호하게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시대에는 자기를 만드는 조선의 도공들에 의해 일본의 도자기 발전에 그게 이바지한다.)



천목다완



정호다완

3.가마(釜, 차솥)

가마는 원래 차탕을 끓이기 위한 소형 철제 **탕관**이다.
차노유가 성해지면서 큰 것은 지름이 27cm, 작은 것은 지름의 21cm 정도가 표준으로 되어 있다.



4.다이스(臺子)

다구를 얹어 놓는 네발 달린 탁자로 도구를 장식하는
다도 최고의 **도구장식** 방식이다.

검은 옷칠을 한 다이스 가운데 풍로가마, 물주전자, 물주걱
세워놓는 그릇, 찻잔에 부은 물을 버리는 그릇, 뚜껑을 놓는
그릇, 다이스위에 향그릇, 새의 깃털로 만든 솔들을 장식
하기도 한다.

다이스(臺子)



5. 미즈마(水指)

가마(釜) 의 물을 보충하거나 다완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 두는 **물 단지**. 도자기 외에 목재 통도 있다.



6. 차기(茶器)

말차를 넣어 사용하는 **다기**이다.
일반적으로 도자기와 나무로 만든 두 종류가 있다.
크기가 대, 중, 소가 있고 모양도 둥그스름하다.



7. 차사쿠(茶杓-가루차를 뜨는 숟가락)

차사쿠는 말차를 떠내는 **숟가락**이다.
차인 스스로 깎아서 만들어 그것을 대나무 통에 넣어 거기에 고유명을 새 넣는다. 그 명은 깎았을 때 심경, 대나무 얼룩 등의 취향에서 거기에 걸 맞는 것이 붙는다.



8. 받침대(柄杓)

가마(솥)의 뚜껑 혹은 차사쿠를 놓는 받침대로 죽제품이나 도기, 금속 등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나 아름다운 그림을 새겨 넣는다. 일반적으로 찻장이나 선반 위에 놓거나 화로 가까이에 장식한다.



9. 會合

차를 끓이기 전에 화로나 풍로에다 숯을 지핀 다음 그 후에 반드시 향(香) 피운다.

이러한 향은 숯 냄새를 없앨 뿐만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는 차실을 청정케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한국과 일본의 차 이름 비교

센차(煎茶, sencha) : 한글로 읽으면 '전차'. 일본 녹차의 대부분(약 80%)가 이 센차이다.

교꾸로(玉露, gyokuro) : 한글로 읽으면 '옥로'. 그늘에서 비료를 많이 주면서 키운 고급 녹차이다. 비싸기도 하고 맛과 향이 강해서 적은 양을 마신다.

맛차(抹茶, maccha) : 한글로 읽으면 '말차'. 교꾸로 처럼 그늘에서 키운 차를 가루로 만든 것이다. 맛차를 마시면 찻잎까지 같이 먹게 된다.

반차(番茶, bancha) : 오래된 큰 찻잎으로 만든 차이며 현재는 중저급품의 차.

호우지차(houjicha) : 반차(番茶)를 불로 때서 만든 차로 엽차용으로 만든 차.

메차(芽茶, mecha) : 센차(煎茶) 나 교꾸로(玉露) 를 만들면서 새 눈(芽) 을 추려서 만든 차.

쿠키차(莖茶, kukicha) : 줄기(莖) 부분을 추려서 만든 차.

현미차(玄米茶, genmaicha) : 센차(煎茶)나 반차(番茶)에 볶은 현미를 섞은 차.

라꾸다완(樂茶碗)



모모야마시대



<저녁>

저녁과 어울리는 황혼의
아름다운 그라데이션.



<타카히로 >

까만 색이 깊은 정신을 느끼게 함

모모야마~ 에도시대



국화문양의 다완



매화문양의 다완

에도시대 초기



백낙다완(白樂茶碗)

같은 것을 다시 만들 수 없기에

<不二山> 라 명명했다.

일본 도예 사상 최초로 작가에 의한 작품



적낙다완(赤樂茶碗)

불길처럼 빛나는 화산 같은 느낌

에도시대 초기



비구름(雨雲)

비가 구름 속에서 쏟아지고 있는 느낌.
어느 각도에서 봐도 모양이 달리 보이는 작품.
음.



적낙통다완(赤樂筒茶碗 : 山人)

억제된 색조가 아름다운 통다완
차가 식는 걸 막아주는 섬세한 마음.

에도시대 전기



적낙다완(赤樂茶碗 : 寒菊)
작가의 힘찬 에너지와
기백이 느껴진다.
다.

모모야마시대



적낙다완(赤樂茶碗 : 道成寺)
옆으면 종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
종으로 유명한 도성사란 이름을 붙혔

모모야마시대



흑낙다완(黑樂茶碗) 초지로 작품
상부는 사각형,하부는 원형
장난기가 감도는 작품
색조가 깊은 맛을 낸다



낙다완(樂茶碗 : 백로)
초지로 초기 작품
손으로 감싸고 싶어지는
부드러운 곡선이 포근하다.

모모야마 시대



파대(破袋)

작자미상,

파대는 밑바닥이 금이 갈라져 있다.
물이 새지 않기에 불가사의다.

다완이 아니고 수지(물통)이다.



히로자와(광택:広沢)

작자미상

히로자와는 교토 · 사가의 연못이름.

모모야마 시대



천목다완(天目茶碗)
작자미상
중국의 (국화)천목다완의
형태를 나타 낸 작품.



흑다완(黑茶碗)
작자미상
몸체의 자태가 요염하다.

모모야마 시대



흑다완(黑茶碗 : 무악 武惡)
시)

작자미상

무악은 희극등장인물

유령의 모습을 한 인간을 가르킨다.

뒤틀린 형태, 겉에 붙은 검은 표면이 독특하다.

에도 초기



적낙다완(赤樂茶碗 : 흥

茶의 미의식(美意識)



茶의 미의식(美意識)

茶의 형태는 한국이나 중국과 일본이 크게 다르지 않다. 차를 약용으로 마시고, 부처님에게 공양물로 올리기도 하며, 참선하는 스님들이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한 음료로 썼다는 점은 세 나라가 비슷하다.

다도란 이런 요소들을 배워 익히며 손님에게 접대하는 과정을 즐기는 일종의 유희 활동이자 그런 가운데 세련된 의례로 전승된 전통 예능의 한 가지이며 그것에 온 마음을 다 써서 몰입하다 보니 구도의 경지에 까지 닿게 된 정신 활동인 것이다.

일본의 다도

1. 다실과 다도구 들의 물질적인 요소
2. 차를 마시는 방법에 관한 행위적인 요소
3. 다도에 관련된 미의식과 종교성 들의 정신적인 요소

화경청적 (和敬清寂)

- 화(和)**- 서로 **사이 좋게** 지내며 나아가 불심에 의하여 서로가 하나로 잘 **어우러지는** 상태. 서로 하나가 되는 상태. 각자가 개성을 지닌 사람임과 동시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불심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불일이며** (不二一如)하는 상태가 곧 화(和)의 정신이다.
- 경(敬)**- 상호 **존중**의 마음가짐을 말한다. 늘 서로 합장하는 자세로 서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도에 임하는 정신이다.
- 청(淸)**- 감각적 물질적인 **청정무구**(淸淨無垢)의 상태를 말한다.
- 적(寂)**- 다실에서는 **정적함**을 유지하라는 의미이지만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적까지를 말한다.

일본다실(茶室)과 다회(茶會)



우라센 家の 다실



우라센가 입구

로지



로 지



로지는 뜰과 다실을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해 주며
다도를 행하기 위한 시작의 공간 이다.

중잠 :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를 나타내는 문.

다실은 세속으로부터 멀어져 별세계의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의 문, 하나의 돌은 세속과 다실을 떼어내는 표로서 존재한다.

다실입구와 공간



다실의 빛의 밝기를 소중히 한다.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아야 하기에 창 위치와 크기에 신중하게 여긴다.

다다미 3장(5.4평방미터)



손님에게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초가의 다실에는 자연스러운 **통나무**를 그대로 배려가 다실에 나타나 있다(천정에 유리창). 사용한다. 나무의 질감, 일정치 않는 굵기, 휘어진 상태에 따라 높은 감성이나 기술이 요구된다.

기본이 다다미 4장반(8.1 평방미터)

토담



대나무 골조에 흙을 발라 마감한 벽으로 튼튼해서 대지진에도 그 형태가 유지된다고 한다. 흙의 색, 흙의 감촉, 토담의 친밀감이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한다.

대나무



대나무는 가볍고 날씬한 아름다움의 있어서 건축용으로 사용되어왔다. 대나무에는 어딘지 모르게 풍류와 정취가 느껴진다.

다화(茶花), 다식(茶食), 족자(簇子)



족자 : 명인의 글씨로 다회의 소중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다화 : 꽃은 단색으로 한 송이 가볍게 꽂는다.(화려한 주홍색은 금한다)



茶 마시는 과정



1. 차 마시기 전에 과자(다식)를 먹는다.
2. 불을 피워 물을 끓인다.
3. 다완에 끓는 물을 부어 예열 하면서 차선도 씻는다.
4. 다건으로 다완과 차순가락(茶杓)을 닦는다.
5. 차순가락으로 차가루를 덜어 다완에 담는다.
6. 끓는 물을 붓고 차선(茶筴)으로 휘젓는다.
7. 두 손으로 공손하게 손님에게 낸다.

茶 도구 명칭



茶筴

차선



柄杓

병표



茶杓

다표



茶碗

다완



일본 고등학교 다도부

아키타의 고등학교에서 국제교류 온
한국학생들을 다도로 茶를 대접하고 있다.

나무 위의 茶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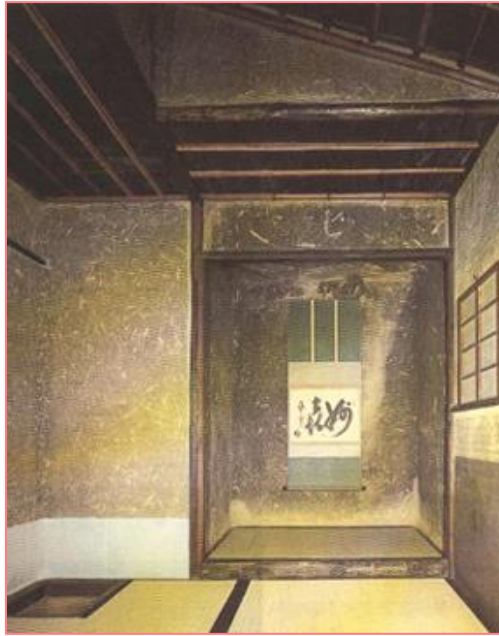
밤나무 두 그루를 활용하여 지은 다실로
정신수양의 장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

茶室 내부 구조



다실에 들어설 때는 고개를 숙여라.

다실에 들어설 때는 천하의 장군도 지체 높은
그 어떤 귀족도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었다.
'와비'의 정신이다.
(와비. 검소와 절약, 인고정신을 가리키는 말.)



일본의 다도

갈증이 나 물을 마신다는 행위가 다도의 근본 목적이지만 차를 마시는 동작 하나 하나에서 인간의 가장 **품위** 있고 아름다운 행위, 군더더기를 제거한 가장 효율적인 동작이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다도(茶道)는 수련(修練)이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 역시 중요하다는 사고, 역사, 전통, 예술까지의 다양한 행위까지를 담았으며 그러한 동작들의 확대를 통하여 인간의

수

없이 많은 행동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다도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본의 다도이다.

1. 忍耐を持ちます。
(닌타이오 모치마스)



2. □かにします。
(시즈카니 시마스)



3. 約束をよく守ります。
(야쿠소쿠오
요쿠 माम리마스)



4. 自分から先にあいさつをします。
(지분카라 사키니
아이사츠오 시마스)



私は大切な人です
(와타시와 다이세츠나 히토데스)

나는 소중한합니다.



私はとても貴重な人です
(와타시와 도테모 키초우나 히토데스)

나는 매우 귀중합니다.



今日、私は自分をもてなします
(쿄오 와사티와 지분오 모데나시마스)

오늘은 내가 나를 대접합니다.



다례송

お茶の飲み方を「茶礼(ダレ)」と言います。
(오차노 노미카타오 다레또 이이마스)



このお茶の名前は、___です。
(코노 오차노 나마에와 00데스)

このお茶の味は、ほろ苦くて
(코노 오차노 아지와 호로니가쿠테)

そのあと甘いです。
(소노아또 아마이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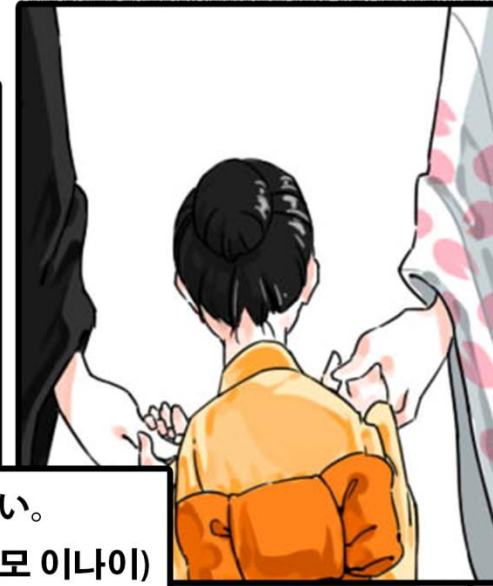
(원우노는다오차와돈나오차데스)카
今日のんだお茶はどんなお茶ですか。

호다레

父が私を生み、母が私を育てた。
(치치가 와타시오 우미, 하하가 와타시오 소다테타.)



両親がいなければ、私もいない。
(료우신가 이나케레바, 와타시모 이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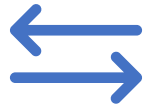
親の恩は空のように高く
(오야노 온와 소라노 요우니 타카쿠)



海のように広いから、
(우미노 요우니 히로이카라)

- 일본인의
- 한국 茶문화 체험





출처:

차와 인류의 동행.조기정,이경희
다도인성교육.서은주.ucn